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 인류 역사 경영

성경말씀: 단2:24-45

성경은 세상의 다른 책과 달리 예언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인간 통치 경륜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역사를 조망하는 눈,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다.

인간의 역사는 6,000년(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계시의 발전, 메시아, 사탄 정복

유대인: 4000년 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스라엘), 이집트 탈출, 가나안 정복, 재판관, 왕정,

바빌론 포로 생활, 해방, 400년의 침묵기, 예수님 초림, 교회 시대, 예수님 재림, 천년왕국

기록자: 다니엘, 기록 시기: 주전 606-536년경, 기간: 약 60년, 수신자: 바빌론 거주 유다 백성,

주제: 느부갓네살~적그리스도까지 이방인 왕국들 예언과 역사, 모든 왕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름: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를 뜻한다. 다니엘은 정치인으로서 대언자의 역할을 수행하였

으며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때까지의 온 세상 왕국의 변천을 미리 본 대언자로서 이방인 역사의 아버지라

할 수 있다. 그는 ‘이방인들의 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눅21:24).

내용: 다니엘서는 바빌론 포로기에 기록되었는데 이때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대인들의 성전과 수도가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였다. 주전 606년경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굴복시키

고 포로로 잡아갈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이때에 붙잡혀 갔다. 다니엘서의 전반부는 다니엘과

관련이 있는 역사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 즉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기와

그분의 지상 사역, 로마 제국의 붕괴, 재림과 적그리스도 등을 담고 있다. 다니엘서에는 온 세상

왕국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때에 관한 ‘70 이레’의 예언이 들어 있다.

여섯 개의 왕국: 바빌론(2:36-48; 7:4), 메대/페르시아(2:32, 39; 7:5), 그리스(2:32, 39; 7:6),

로마(2:33, 40; 7:7), 적그리스도(2:41-43), 그리스도(2:34-35; 44-45; 7:9-14)

배경 설명

하나님의 백성의 배교와 타락: BC 721년 북왕국은 아시리아의 살만에셀에 의해 멸망당

유다의 바빌론 포로 생활(BC 606, 597, 586), 바빌론에서 귀환(BC 536) 총 70년간의 포로 생활

바빌론(Babylon)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세워진 고대의 유명한 도시. 홍수 이후 이곳은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며 고대 전설은 이것을 지지한다(창10:8-11 니므롯). 구 바빌론: 함므라비 등

신 바빌론: BC 620년경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사르가 세움, 이것이 성경의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통치 때에 바빌론 도시와 바빌로니아 왕국은 영예의 최고조에 달하였다. 그는 힘을 다해

바빌론을 치장하였고(공중 정원, 7대 불가사의) 그래서 이것은 그의 자랑의 하나가 되었다(단4:30)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물리치셨고 그래서 그는 한때 예언에 따라 짐승 같은 신세가 됨(단4).

하나님은 바빌론 포로 시기에도 일하신다: 자신의 백성이 타락하고 징계를 받을 때에도, 희망이 있다.

가장 강성한 이교도 나라 바빌론에서 유대인 다니엘을 통해 세상 역사, 유대인 역사를 보여 줌

세상 역사가 너무 정확하여 다니엘서가 후대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느부갓네살의 꿈

2장은 가장 중요한 장, 주인공은 느부갓네살도, 다니엘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의 꿈(2:1), 잠을 설침, 무리한 요구(2-9):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모으고 꿈을 내게 알리라.

지혜자들의 대답(10-11), 왕이 그들을 떨하라고 함(12)

다니엘은 바빌론의 지혜자들 중 하나(14), 기간 연장 요청(16)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기도(17-18), 하나님께서 밤에 그에게 은밀한 일을 계시함(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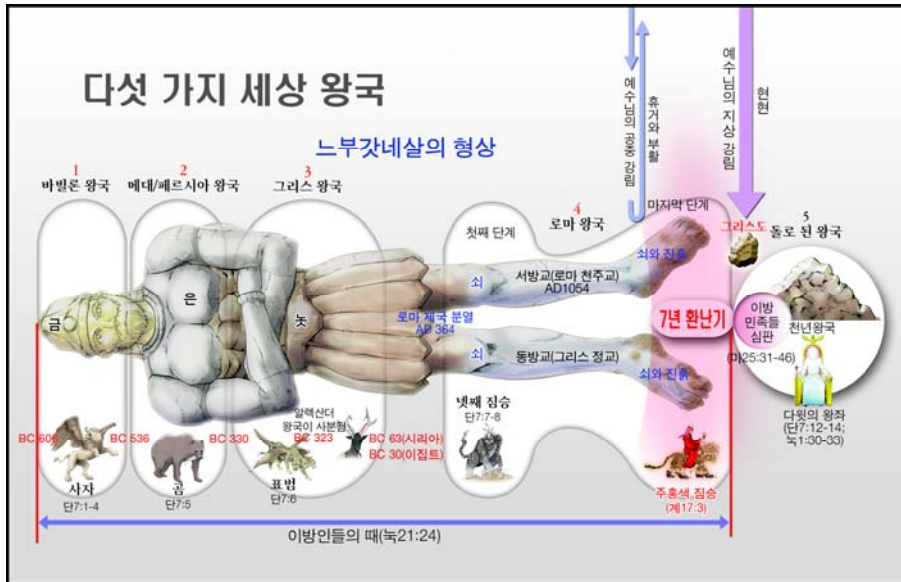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먼저 하는 말(27)

세상을 통치하던 느부갓네살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28-29). 마지막 날들(28), 겸손함(30)

꿈 설명(31-35) 금, 은, 놋, 쇠와 진흙, 깎아낸 돌

형상은 세상 왕국의 변천, 예수님은 이것을 이방인들의 때(눅21:24), BC 606부터 시작되어 환난기

끝까지 진행됨(계11:1-2). 그리고 재림으로 끝이 남(눅21:25-28), 27절 참조



해석(36-45)

1. 금 머리(37-38): 바빌론(BC 606-536), 주님의 손에 있는 금 잔(렘51:7)
2. 은 가슴과 두 팔(39): 메대 페르시아(BC 536-330)
3. 놋 배와 넓적다리(39): 그리스(BC 330-63(시리아), 30(이집트)), 알렉산더(BC323 사망)
4. 쇠 두 다리, 쇠와 진흙의 두 발(40-43): 로마제국(BC 63-30 이후)
단8:20-21을 보면 메대/페르시아 그리스 등의 이름이 언급된다.
5. 세상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44-45), 하늘의 왕국, 돌 왕국

몇 가지 교훈

1.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하나님의 역사 주권)
 - a. 하나님이 미래를 다 아신다. 섭리로 주관하신다(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 b. 심지어 이방인들의 왕들도 세우신다(2:37-38). 왕들도 멸하신다.
2. 세상의 일들(인간의 업적)은 타락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열역학 제2법칙).
 - a. 모든 것이 악하고 추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노아의 때와 같다. 금, 은, 놋, 쇠, 진흙
 - b. 금(19.3), 은(10.5), 놋(8.5), 쇠(7.8), 진흙(2.0), 비중,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
 - c.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진다. 느부갓네살, 고레스, 알렉산더, 적그리스도(8:25) 동성애, 인간복제(43절), 노아의 홍수, 룯의 때
3. 세상의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혼합된다(쇠와 진흙). 평화와 연합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진정한 연합이 안 된다. melting pot(행17:26-27)
 - a. 흙에서 나온 인간은 허무함 자체이다(시39:5)
4.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재정립하신다.
 - a. 후천년주의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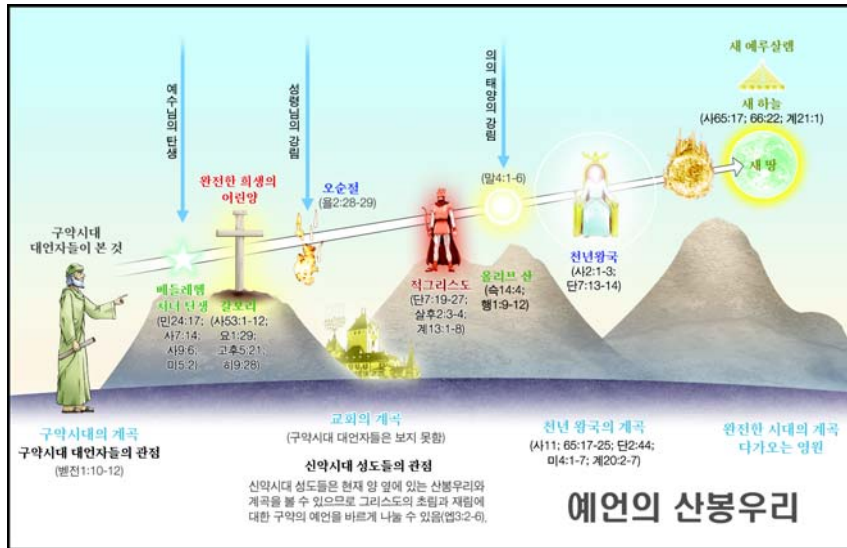
왜 50이 아니라 6왕국인가: 로마 제국의 두 부분

4. 쇠 두 다리, 쇠와 진흙의 두 발(40-43): 로마제국, 두 부분으로 나뉜다(40과 41-43).
초림 때의 로마 제국(40), 재림 때의 로마 제국(41-43)“ 이 부분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예언의 산봉우리: 구약시대 유대인 대언자들에게는 교회 시대가 구체적으로 계시되지 않음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를 이룬다는 계시는 신비로 남아 있었다(엡3:5-6), 교회의 신비(10) 구약의 대언자들이 앞날을 볼 때 초림의 산꼭대기와 재림의 산꼭대기가 하나로 보였다.

초림과 재림의 산 사이에 교회의 골짜기가 들어 있다. 대언자에게는 계시되었으나 알지 못함 이것을 아는 것이 예언 이해의 핵심



9장의 70이레

다니엘서 9장의 70이레: 70년을 깨달음(2), 죄를 자백함, 그런데 70년이 아니라 70이레가 정해졌다(24) 즉 단2장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려면 다니엘 이후의 어느 시점부터 490년이 정해졌다.

그 시점의 시작(25), 아닥사스다의 느헤미야 귀환(BC 445, 느2:5-8) 성벽 건축

그 명령부터 메시아까지 7이레+ 62이레=69이레, 483년, 즉 AD30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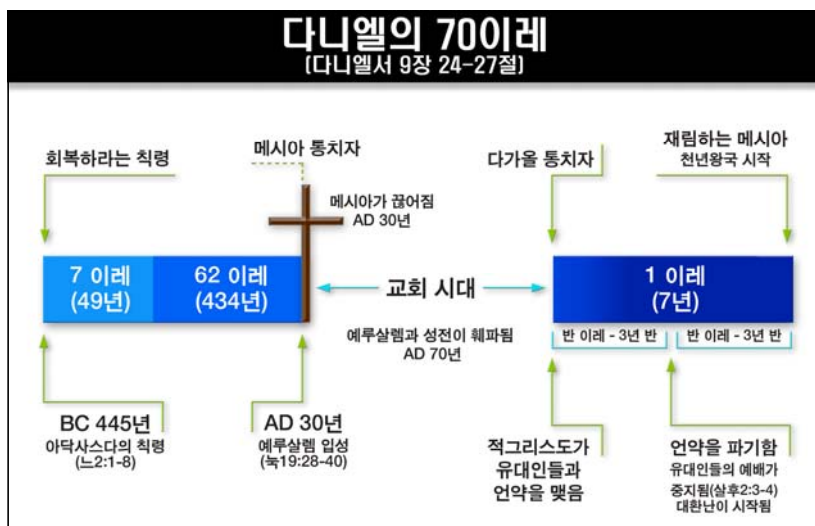
이제 한 이레의 7년이 남아 있다. 그런데 26절을 보라. 메시아의 죽음 이후에 시간을 뛰어넘으며 장차 임할 통치자가 등장한다. 그 통치자가 하는 일은 유대인들 학살

그는 한 이레 동안(7년) 언약을 확정함. 이레의 한 중간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우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함(27; 살후2:4), 3년 반의 대환난기, 한 때 두 때 반 때(단12:7), 반 이레(단9:27)

1,260일(계12:6, 11:3), 3. 마흔 두 달(계11:2; 13:5), 4. 한 때, 두 때, 반 때(계12:14) 성벽 건축 이후로 예수님 처형 그리고 세상 끝까지의 역사가 70이레 예언에 들어 있다. 무엇이 빠져 있는가?

교회 시대가 빠져 있다. 예언의 산봉우리

예수님의 복음 사역 시작(눅4:18-21), 사61:1-2, 2절은 초림과 재림, 후반부 재림은 뺐이 부분은 재림 때에 이루어짐



하나님의 세상 역사 주관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찬양(2:46-47)

3장: 두라 평야에 27미터 금 형상 설치, 우상숭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우상숭배 거부, 용광로, 하나님의 아들(25), 하나님 찬양(28-29)

느부갓네살의 문제: 여전히 교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자랑함(4:30-31).
하나님의 판단(31-33), 그의 회복(34-37)

이 땅의 모든 왕국과 왕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섭리로 세우신다.

트럼프, 클린턴, 대개 백성의 뜻에 따라, 백성의 마음이 사악하면 사악한 통치자를 주신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성실히 믿음 생활

결론

사람과 사람의 역사는 느부갓네살의 형상처럼 없어지고 만다.

세상 끝에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하늘의 왕국이 도래한다.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초림 때에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제공(마3:3; 4:17; 10:7), 그들의 거부, 마23:39가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 도래한다.

로마 제국의 두 부분, 초림 때의 로마, 유산과 역사가 그대로 계승되며 재림 때의 로마

이때의 중심은 유럽, 7년 환난기의 통치자는 적그리스도(단7), 후반부 3년반 대환난

유대인 핍박: 미국과 영국의 약화, 이슬람 강화, 천주교 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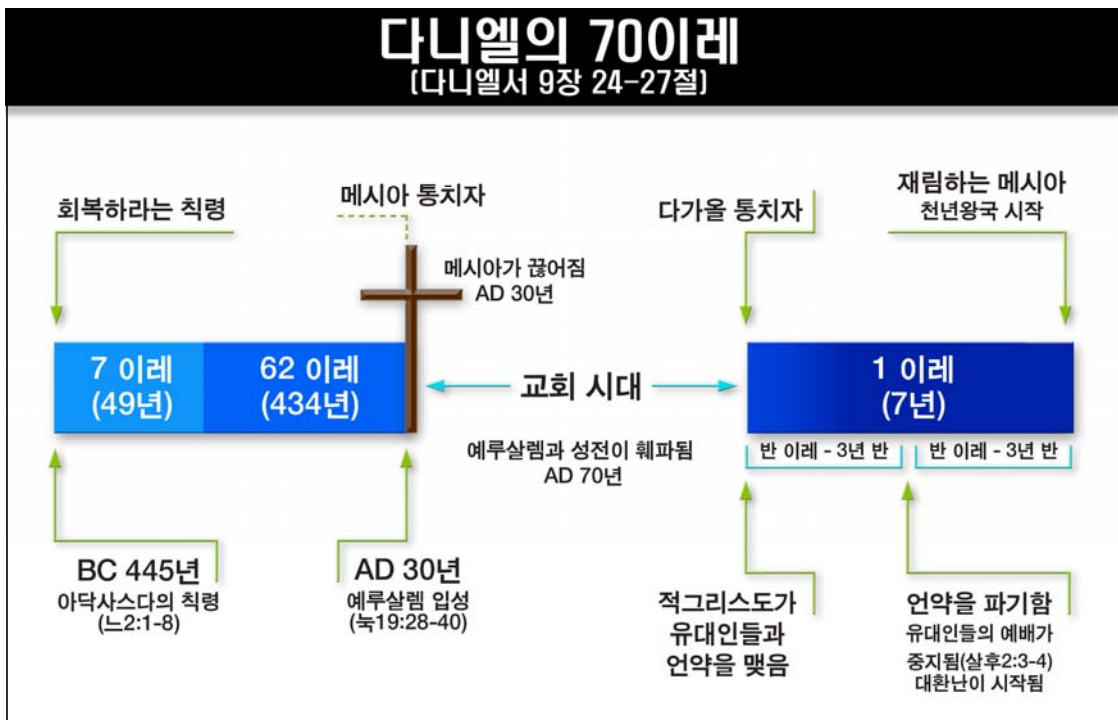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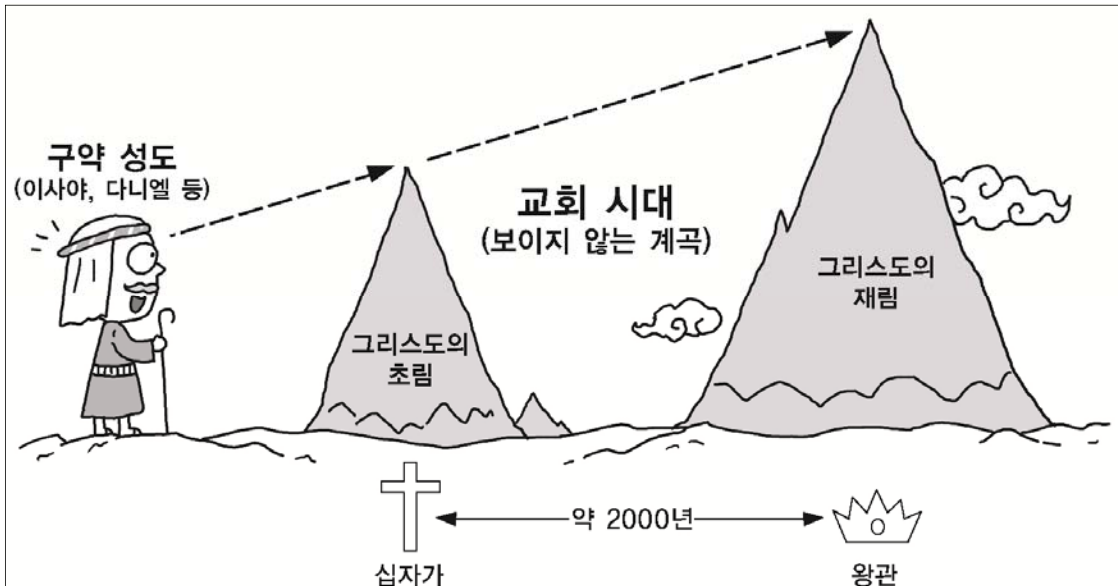
그런데 다니엘의 70일 490년 기간에 교회는 나오지 않는다. 즉 교회는 신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교회는 휴거되어 올라가므로 이 땅에 없다. 그래서 안 나온다(계4-19).

브렉시트, 유럽 연합, UN, 미국 선거 풍향계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 정하기 No!

언제라도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거룩한 성도로 살자(벧후3:11, 14).



구약 성도
(이사야, 다니엘 등)

교회 시대
(보이지 않는 계곡)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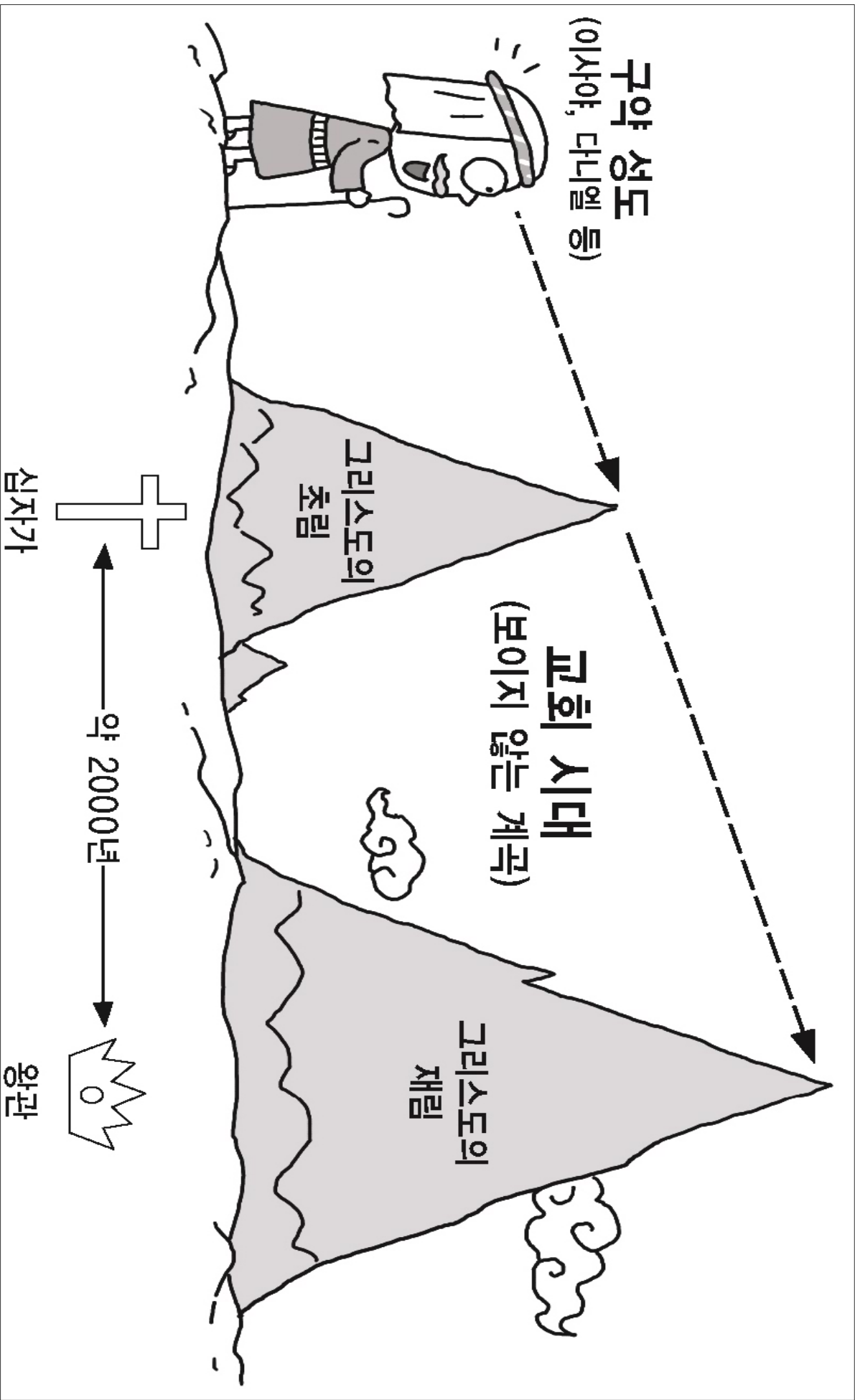


십자가

약 2000년



왕관



다니엘의 70이레

[다니엘서 9장 24-27절]

